

태일이네 낱말퀴즈



정답보기

1	1			2			3
				2			
		4					
3							

가로 열쇠

- 1 “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!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.”를 외치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에요.
- 2 태일이 일한 곳으로 옷을 만드는 공장이에요. 좁은 공간에 다락방을 덧대어 허리조차 펴 수 없는 열악한 공간이었어요.
- 3 해고당했다가 평화시장에서 다시 일하게 된 태일이 1970년에 만든 재단사 모임이에요.
- 4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·향상하고자 하는 법으로 태일은 바보회, 삼동회를 만들어 노동환경을 바꾸려고 행동했어요.

세로 열쇠

- 1 태일이 설립하진 못했지만,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운영하고 싶어 했던 의류공장이예요.
- 2 태일은 본인의 버스값을 아껴서 배고픈 시다들에게 이것을 사주고 집까지 3시간 이상 걸어 다녔어요.
- 3 서울 동대문 청계천 주변에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의류 도매 상가로 태일이 다녔던 봉제공장이 있던 곳이에요.
- 4 태일이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행동하고자 처음으로 만든 재단사 모임이에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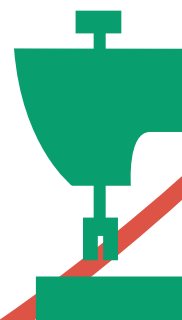
전시실 여행



행복한 바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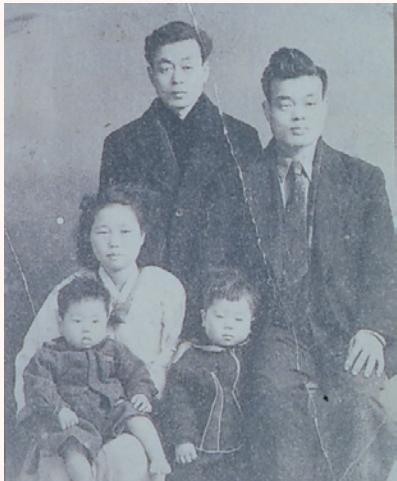
태일리와

함께하는



아름다운 청년
전태일
전태일기념관

이름 _____



가족사진(전태일 3살) 1951년, 전태일재단

전태일의 어린 시절

대구에서 태어난 태일이는 집이 가난해서 부산, 서울 등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. 12살 태일이는 생계를 위해 우산 장사, 구두닦이, 신문팔이 등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학교 가는 것을 행복해하는 밝은 아이였어요.

전태일의 눈

시다*로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에서 일하게 된 17살 태일이는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힘들게 일해야 했어요. 태일이는 동료들이 힘들게 일하면서 밥도 못 먹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어요. 그래서 자신의 버스비로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고, 3시간 이상 걸어서 집에 가는 날이 많았어요.

* 1960~70년대에 봉제공장에서는 일을 보조하는 말단 직원을 일본어인 시다로 불렀다. 시다는 대부분 어린 여성노동자로 다리미질과 실밥 뜯는 일, 실과 단추를 나르는 일부터 사업주나 미싱사, 재단사의 잔심부름까지 도맡아 했다.



평화시장에 시다로 취직했을 때 동료 시다미싱보조들과 함께 1964년, 전태일평전

다락방 속 하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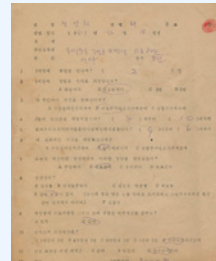
평화시장의 봉제공장은 10평 내외 좁은 공간에 다락방을 덧대어 허리를 펼 수 없었고,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실 먼지 가득한 곳이었어요. 시다들은 적은 임금을 받으며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어요.



평화시장 다락방 봉제공장 1973년, 청계천박물관(노무라 모토유키)



바보회 회장 명함 1969년, 전태일재단



평화시장 노동실태조사 설문지 1970년, 전태일재단

“근로 기준법 을 준수하라!”
“우리는 재봉틀 이 ,아냐!”
- 1970년 수기에서 -

전태일의 실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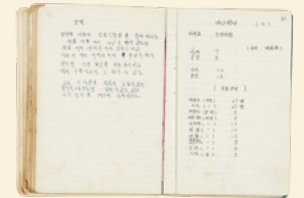
태일이는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재단사 모임인 바보회*를 만들었어요. 바보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해체되었지만 태일이는 다시 삼동회를 결성했어요. 더 적극적으로 평화시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도 제출했어요. 그런데도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, 태일이는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책을 불태우기로 결심했어요.

* 노동조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바보같이 사장에게 당하기만 했던 것을 탄식하며 정한 명칭

모범업체 태일피복

태일이는 하루 8시간 근무하고, 시다에게 최소 8,000원의 월급*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운영하는 의류공장을 설립하고자 했어요. 현실적인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지만,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어요.

* 1970년 시다 월급은 평균 3,000원이었다.(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)



모범업체 설립계획서 1970년, 전태일재단

전태일의 꿈

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는 전태일의 뜻을 이어받은 전태일의 친구와 어머니는 평화시장에 청계피복노동조합을 창립했어요. 이후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노동자들은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서로 연대하며 투쟁했고, 오늘날의 노동환경을 만들어 냈어요.

